

해방과 격동기 광주대교구 가톨릭 성당건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e of the Catholic Church in Gwangju Archdiocese during the Liberation and Turbulent Periods

김재웅*

Kim, Jae-Ung

(조선이공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조교수)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athedral architecture of the Archdiocese of Gwangju, which was completed in the period of liberation and turbulence, an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Gwangju Archdiocese Cathedral, completed during the period of liberation and turbulence, was built with some assistance from the U.S. military or with the efforts of the faithful, and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such as space directing by Aps, the development of a simplified bell tower, the appearance of a stone cathedral, the application of a quanset structure, and an increase in size. show special features The indented apse appears only after liberation, and is a characteristic that appears prominently in stone churches. The simplified form in which the bell was hung by raising the outer wall appeared in the early church shows a change in the composition with a porch in front. The stone church and the quanset-structured church only appeared after liberation and were built only in the 1950s. The size of the cathedral reflec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believers after the Korean War, and the average area is about 1.5 times higher than before liberation. When considering the spacing of the bays as a module, the size plan followed the implicit norm of early cathedral architecture of 36.5m, but gradually decreased to 2.7m and 2.4m.

주제어 : 가톨릭, 성당건축, 광주대교구, 해방, 한국전쟁

Keywords :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Archdiocese of Gwangju, Liberation, Korean War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해방 이후 분단 시대와 머지않아 발발한 6·25전쟁은 인적·물적·정신적 모든 면에서 큰 재해를 안겨 주었고, 천주교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분단 정권과 한국전쟁이라는 정세는 천주교구의 규모와 신자 수의 변화와 더불어 가톨릭 성당건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1945~1962년을 해방과 격동기의 교회 건축으로 단락지은 저서에서는¹⁾ 이 시대의 서양식 성당이 더욱 간략화·소규모화되었으며 내부 공간은 단순한 강당 형

태가 되었고, 당시 성당건축의 상징적 의미는 ‘하느님이 보호하는 견고한 성’이었으며, 내부 공간보다는 성곽 형태의 외관과 감각적인 장식으로 표현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전국에 걸친 당대 성당 사례를 수록하면서도 광주대교구 관할인 전남의 사례는 전무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이후 진행된 성당건축 관련 연구에서도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적인 연구 성과에 그치고 있어 전남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과 격동기에 준공된 광주대교구 성당건축을 대상으로 평면구성과 구조, 입면, 규모의 변화 등 건축에 투영된 격동기의 변화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방 이전 광주대교구 성당건축과 그 차이를 살피는 등 당대의 건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jukim@cst.ac.kr

1)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1994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대상은 해방과 격동기 즉, 해방 이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준공된 본당으로 공소를 제외하면 <표 1>과 같다. 본 표의 건립 연도는 본당의 설립일이 아닌, 성당의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당시 준공된 총 14채의 성당 중 원동, 진도, 담양, 화순성당은 철거되었고, 함평성당을 비롯한 목포의 경동과 흑산성당이 최근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현존하는 10곳의 본당을 중심으로 실측과 촬영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철거된 4곳은 현황 파악이 불가하여 치수 계획 등 세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해방과 격동기 광주대교구 성당건축

성당	준공 연도	비고
함평	1952	舊본당(국가등록문화재)
광주 원동	1954	철거
목포 경동	1954	現본당(국가등록문화재)
진도	1956	철거
영산포	1956	現본당
일로	1956	現본당
무안	1957	現본당
여수 동산동	1958	現본당
담양	1958	철거
흑산	1958	現본당(국가등록문화재)
화순	1958	철거
목포 북교동	1958	現본당
곡성	1958	現본당
해남	1959	現본당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를 통해 광주대교구의 천주교 전래 및 성당건축의 과정을 고찰하였고, 해방과 격동기 한국에 지어진 성당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 등 전자문서의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현장 조사는 현존하는 10곳의 본당을 중심으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진행하였다.²⁾ 평면 실측은 피투피(P2P) 방식의 레이저 측정기(Leica, Disto930)를 활용하여 정밀도를 높이고, 360°와 드론 촬영을 병행하였으며, 실측도면은 옛 사진과 원로 신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신축 당시 원형에 가깝도록 작도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실측된 도면을 중심으로 평면과 공간 구성, 입면과 구조를 살피고 규모와 치수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해방 이전 광주대교구의 성당건축에 관한 연구 결과와 견주는 등 해방과 격동기 성당건축의 건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2) 본 현장 실측 조사는 순수 연구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여타 사업의 결과물을 인용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2. 선행연구 고찰

한국 천주교회사에³⁾ 따르면 해방 직후 한국인 성직자들의 선교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 남북한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대구교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교회에도 큰 피해를 보았다. 남한에 있던 교회 건물 상당수가 전화(戰禍)를 입어, 해방 이후 활발히 전개되던 교회 사업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1953년 휴전으로 사회가 점차 안정되자 남한의 교회는 파괴된 교회를 복구하고 선교 활동을 재개해 나갔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인적 손실은 외국의 선교사와 수도회의 지원을 통해서 보완되어 갔다. 외국 교회의 지원은 교회가 입은 물질적 손실을 복구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휴전 직후 남한 교회는 매우 높은 신자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1953년 남한의 신자 수는 대략 17만 명 정도였다. 휴전 이후 1950년대의 연평균 신자 증가율은 16.61%에 이르렀다. 특히 1958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24.18%의 신자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성당건축과 관련지어 보면, 우선 전쟁으로 인해 성당 재료로 주로 사용되던 벽돌 공급이 어렵게 되어 이를 대신하는 재료가 선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⁵⁾ 또한 당시 지어진 성당의 절반가량이 신자 수가 급등한 1958년에 준공되었음을 볼 수 있듯이(표. 1) 신자의 증가에 따른 교회 신축의 양적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2-1. 해방과 격동기 성당건축

전술하였듯이 이 시기를 해방과 격동기의 교회 건축(1945~1962년)으로 단락지어, 양식 변형의 서양식 성당건축으로 춘천 죽림동, 원주 원동, 서울 돈암동, 강릉 임당동, 익산 여산, 함열, 충남 강경성당을 소개하였다. 근대 지향적인 성당으로는 김천 평화동, 경북 점촌, 서울 혜화동 성당을 소개하며 새로운 전례 개념과 건축 사조가 도입된 것이라기보다는 2차 대전 후 이미 보편화되기 시작한 서양 현대 교회 건축의 외형적인

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 천주교회 총람 2013-2017, 한국 천주교회사, 2018

4) <https://cbck.or.kr/Catholic/Korea/History>

5) 성당건축 재료로 주로 사용되던 벽돌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부산과 대구의 일부 벽돌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벽돌공장이 가동 중지되었다. 조홍석, 김정동, 근대 적벽돌 생산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제19권 6호, 2010, 114쪽

모방의 시도로 보았다. 또한 청주 내덕동, 청원군 부강 성당을 소개하면서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관할한 지역에서는 나름의 토착화를 시도한 중국풍 한·양 절충식 건물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⁶⁾

1950년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강원 영동지역 성당건축에 관한 연구를⁷⁾ 꼽을 수 있다. 1950년대에 건립된 영서 지역 7개소, 영동지역 7개소로 총 14개소를 대상으로 배치와 평면, 입면, 구조적 측면에서 그 특성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물자 부족 시기라 군부대 지원에 의한 성당 건립이라는 점, 1965년 춘천교구 분리 이전 성 골롬반 외방전교회의 선교이념에 따라 많은 성당이 동일 시공자에 의해 건립된 점 등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개화기~1960년에 대구·경북에 지어진 성당건축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⁸⁾ 양식적 특성과 구조 및 재료 등 그 건축적 특성을 살피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의 근대 성당건축은 한국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상당수의 성당이 파괴되었고, 그에 따라 파손된 성당의 복구 또는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근대 성당건축에서 고딕 양식을 탈피하며 형태와 구조에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부산 가톨릭 성당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⁹⁾ 복고주의 양식, 절충주의 양식, 기능주의 양식, 모더니즘 양식으로 크게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 형태는 일제강점기의 성당건축 양식에 근대적 건축양식이 첨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2-2. 해방 이전 광주대교구 성당건축

해방 이전에 준공된 광주대교구 성당건축에 대한 입지와 배치, 평면과 규모, 구조, 증축과 변용(變容)에 이르는 건축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¹⁰⁾가 최근 진행되었으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목포, 노안, 순천, 북동, 나주, 장성본당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 1. 해방 이전 광주대교구 성당

목포 산정동본당은 1913년에 십자가성당이 벽돌조로 건립되어 1950년대 증축되었고, 1966년에 166평 규모, 철근콘크리트조로 현재의 산정동 성당이 준공되면서 십자가성당은 철거되었다. 나주 노안본당은 1909년에 사제관과 십자형 성당이 신축되었다. 이후 사제관은 1927년 성당으로 개조·확장되었고, 1957년에 날개 부분을 증축하여 현재의 십자형 평면을 갖추게 되었다. 순천 저전동본당은 1936년에 60평 규모의 연와조로 지어져 1958년에 본당 회중석이 증축되었다. 이후 1978년에 전실이 확충되었고 1989년에 철거되었다. 광주 북동본당은 1938년에 벽돌조로 지어져 1987년 제의실을 소성당으로 개조, 확장하였다. 나주본당은 1937년 80평 규모의 서양식 목조로 지어져 1961년 본당 회중석이 증축되고, 1988년 소성당을 증축하였으며, 장성본당은 1937년에 40여 평 규모의 서양식 목조 성당으로 신축되어 1954년에 회중석이 증축되었다.

연구 결과 당시 지어진 광주대교구 성당은 벽돌조와 이를 모방한 서양식 목조로 지어졌고, 성당 평면은 네이브(Nave)와 아일랜드(Isle)의 구별이 없는 강당형이 주를 이루며, 당대 보편적인 소규모 성당에 비해 간소하고, 건축면적도 신축 당시 40평~ 91평 크기로 소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평면계획에 적용된 모듈은 3.65m로 12자(尺)의 공통점을 보이고, 이후 1950년대 중후반에 소매채가 증축되거나 측면 베이(Bay)를 3칸 증축하여 회중석을 키우는 등 규모를 늘리는 현상은 6·25전쟁 후 가톨릭 신자의 급격한 증가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3. 해방과 격동기 광주대교구 성당건축

광주대교구의 14곳 성당에 대한 개황을 살펴보면, 함평성당은 1949년 본당을 신축하였으나 다음 해 한국

6) 김정신, 앞의 저서, 1994, 94쪽

7) 서성남, 강원 영동지역 성당건축의 형태적 특성 연구 : 1950년대 성당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8

8) 하상균, 대구·경북의 근대 성당 건축에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 경일대학교 석사논문, 2011

9) 김의용,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부산 가톨릭 성당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배치형식과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 논문집, 10권 1호, 2008

10) 김재용, 광주대교구 초기 천주교 성당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22권 1호, 2020

전쟁의 방화로 소실되어 1952년에 중층규모로 재건되었고,11)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원동성당은 1954년에 주한 미8군의 협조와 호주교회 아동의연금으로12) 지어진 후 1971년 새 본당이 준공되면서 성모유치원으로 활용되다가 철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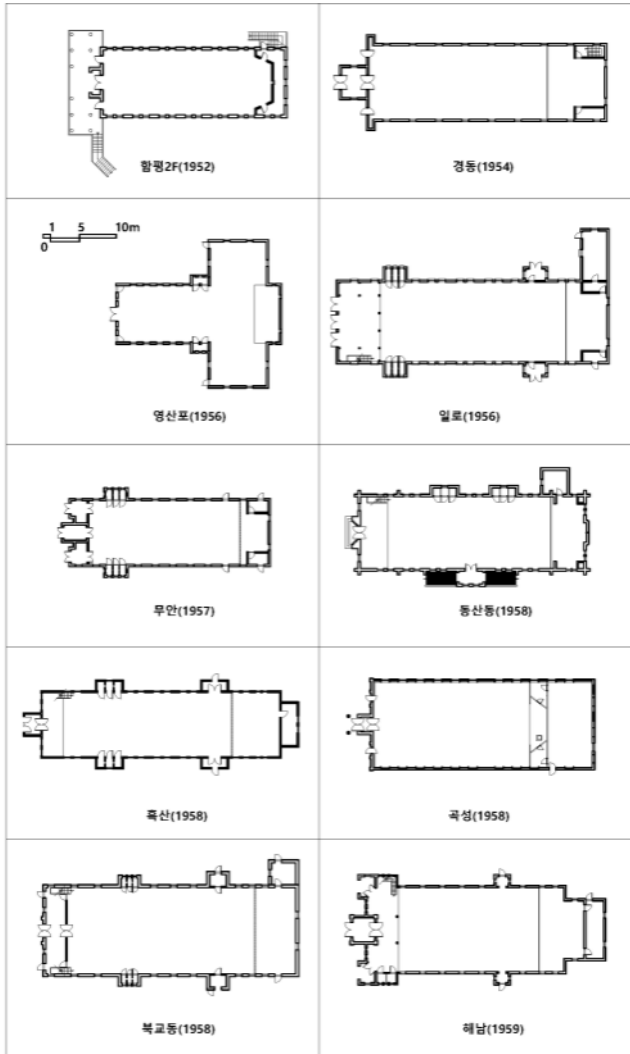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 성당의 평면도(현장실측본)

경동성당은 1952년에 착공하여 중층 석조로 1954년에 준공되었으며, 1965년 종탑 부에 균열이 생겨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되었고 최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진도성당은 1956년 52평 규모로 지어졌고, 1995년 새 본당이 준공되면서 철거되었으며, 영산포성당은 6·25전쟁 때 참전하였던 미군들의 군수품 중 건축자재를 입수하여13) 본당 및 공소 신자들의

11) 함평군, 구)함평성당 내부장호복원 및 수장 도장공사 수리보고서, 함평군, 2019, 1쪽

12) 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 50년사, 1990, 242쪽

13) 광주대교구, 앞의 저서, 1990, 276쪽

자원 노력 봉사로 1956년에 준공되었다.

석조로 지어진 일로와 무안성당은 거의 동시에 착공하여 1956년 일로성당이 먼저 준공되고 다음 해 무안성당이 완공되었고, 동산동, 담양, 흑산, 화순, 북교동, 곡성성당은 1958년에 거의 동시에 준공되었으며, 이듬해 해남성당이 낙성식을 거행하였다.14) 곡성성당은 미공군에서 가져온 퀴셋(Quonset)으로15) 지어졌고, 담양과 화순성당은 철거되어 현장 조사가 불가하나 옛 사진을 통해 퀴셋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북교동성당은 일로, 무안성당과 같이 석조이고, 비교적 후기에 지어진 동산동과 해남성당은 조적조, 흑산성당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어졌다.



그림 3. 해방과 격동기 광주대교구 성당

3-1. 평면구성과 앵스의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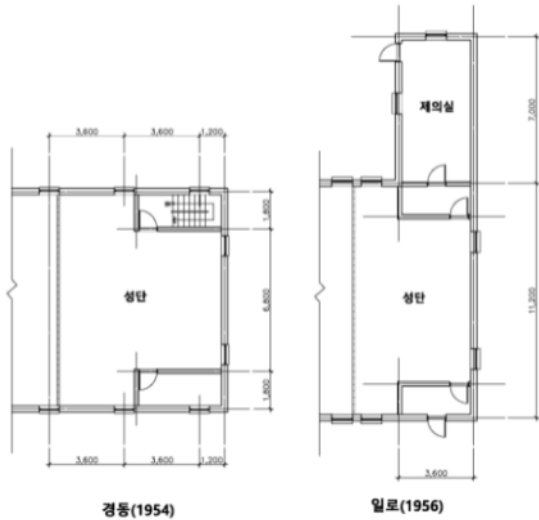
평면형식은 해방 이전의 성당과 마찬가지로 네이브와 아일의 구별이 없는 강당형의 구성으로 삼랑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로 가장 소규모인 영산포성당만이 라틴 크로스 형식으로 구별된다. 평면구성은 나르텍스(Narthex), 네이브, 알타(Altar), 앵스(Apse) 순이며, 양측에 고해소와 측면 출입구를 계획하여 대칭을 이룬다. 다만 일로와 북교동, 동산동은 제대의 좌측에 돌출부를 두어 제의실로 사용함으로 대칭에서 벗어나는 사례이다.

14) 광주대교구, 앞의 저서, 1990, 275, 284, 334, 356, 379, 410, 424, 428쪽

15) 광주대교구, 앞의 저서, 1990, 358쪽

앵스는 해방 이전에 지어진 광주대교구 초기 성당의 연구에 따르면¹⁶⁾ 벽돌조로 지어진 북동성당의 앵스가 정방형 형태로(3.65×3.65m) 돌출되었고, 나머지는 앵스가 없는 평면구성이다. 해방과 격동기에 지어진 성당 역시, 벽돌조로 지어진 해남성당이 제대 후면을 2.7m의 깊이로 돌출시킨 앵스를 두었을 뿐 나머지 성당은 돌출된 형식의 앵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돌출된 앵스가 없는 이들 성당은 해방 이전의 초기 성당과는 다르게 제대 양측에 대칭으로 내벽을 쌓아 실로 구획한 차이점에 주목된다. 이는 돌출된 앵스와 대조되는 만입(灣入)된 앵스라고 구분할 수 있으며 이전 초기 성당과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입된 앵스는 함평성당을 비롯한 6곳의 성당에 적용되었고, 특히 경동성당, 무안성당, 일로성당과 같이 석조성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동(1954)



일로(1965)

그림 4. 만입된 앵스 사례

이들 만입된 앵스는 제대 양측에 구획된 실을 회중석에서 보았을 때 구조체가 돌출되어 만들어진 앵스와 유사한 공간이 연출된다. 또한 제대 후벽 양측에 세로 창을 두어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하는 공통점도,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당대 앵스의 연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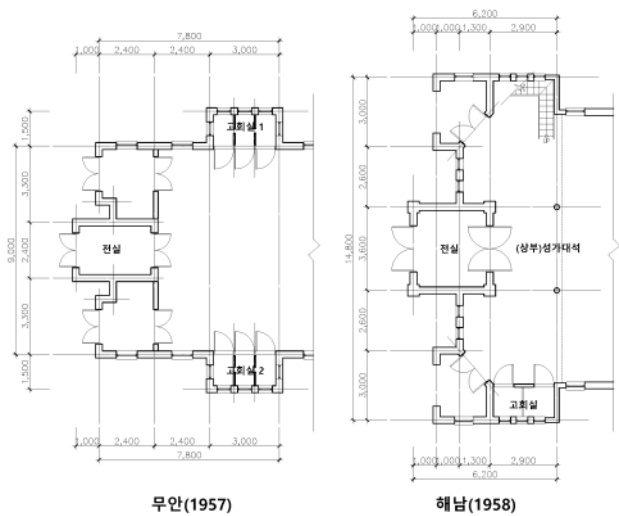
16) 김재웅, 앞의 논문, 2020, 185쪽

만입된 앵스를 연출하는 양측의 실은 외부로는 사제관을 향한 출입문이, 내부로는 제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제의실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의장성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한 평면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3-2. 종탑의 강조와 간소화

종탑은 해방 이전 광주대교구 초기 성당의 경우 전면 중앙에 타워형으로 전실을 겸하도록 구성된 것과(노안성당, 북동성당) 우측면에 종탑을 두고 그 하부를 고해실로 활용한(장성성당) 사례가 있으며, 철거된 산정동과 순천 저전동성당은 전면 중앙에 타워형이 아닌 외벽을 치켜올려 종을 매단 간소화된 형식이다.¹⁷⁾

해방과 격동기 성당의 종탑은 돌출형과 독립형, 무탑형이 나타나며, 독립형은 영산포성당, 무탑형은 일로성당이 해당하고 나머지 성당은 돌출형이다. 해방 이전의 성당에서 나타나던 외벽을 치켜 올린 간소화된 형식은 동산동과 흑산도성당 그리고 철거된 화순성당이 해당한다.



무안(2021)



해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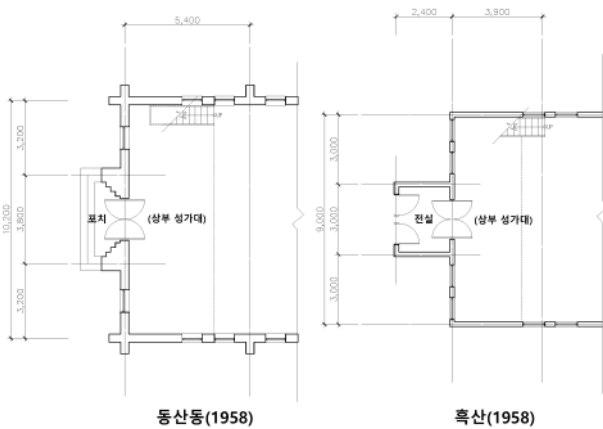
그림 5. 강조된 종탑 사례

돌출형은 초기 성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면 중앙에 놓여 전실 기능을 겸하도록 구성되었고, 이들 사례 중 2층 규모인 것은 경동성당과 함평성당이다. 경동성

17) 김재웅, 앞의 논문, 2020, 183쪽

당은 돔으로 첨두를 장식한 종탑을 전면 중앙에 세웠으나 헐리고 파사드(Facade)가 변경된 채 등록문화제가 되었다.

돌출형 종탑의 성당 중 1층 규모의 성당은 무안성당과 해남성당 그리고 철거된 진도성당이 해당한다. 그중 무안과 해남성당은 종탑이 유난히 강조된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전면에 세 개의 타워를 세워 중앙 타워는 높게 지어 종을 달고, 양측은 더욱 낮은 높이의 타워를 지어 타구(打口)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마치 성곽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구성은 한국전쟁 이후 하느님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강조하거나 신자들의 신심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동санд(2021) 흑산(2021) 화순(2010)

그림 6. 간소화된 종탑 사례

초기 성당에서 나타나던 외벽을 치켜올린 간소화된 형식은 전면 돌출 면이 없으나, 이후 격동기에 지어진 성당은 일정 두께의 돌출을 두고 출입구에 포치 혹은 전실 공간이 추가되었다. 동санд, 흑산, 화순성당¹⁹⁾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형식은 전실을 겸한 온전한 타워형의 돌출형 종탑과는 구별된다. 이들 성당의 입면 파사드는 상호 흡사한 공통점을 갖는 한편, 해방 이전에 비해 포치가 생겨나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18) 강길선, 한국성당건축의 공간변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31쪽

19) <https://blog.daum.net/102prince/136>

3-3. 석조성당의 등장과 퀘셋 구조의 적용

해방 이전에 지어진 광주대교구 초기 성당건축의 구조는 벽돌조와 서양식 목조로 대별되고, 임시성당의 구조로 사용되던 서양식 목조는 벽돌조를 모방하여 본당의 구조로도 사용되었다.²⁰⁾

해방과 격동기에 지어진 성당의 구조는 벽돌조와 석조, 철골조(퀘셋), 철근콘크리트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벽돌조로 지어진 성당은 함평, 영산포, 동санд, 해남성당이며, 함평과 동санд성당은 적벽돌이 노출된 상태이나, 해남성당은 후대에 적벽돌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덮었음이 옛 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함평성당은 적벽돌(210×100×600) 2.0B 화란식 쌓기로 외벽을 쌓아 버트레스(Buttress)로 보강하였고, 내벽은 1.0B로 쌓아 각 실의 칸막이벽을 구성하였다.²¹⁾ 동санд성당도 화란식으로 쌓았고 버트레스로 보강한 공통점을 갖는다. 동санд성당의 버트레스는 양측에 베이 간격에 맞춰 시설되었고, 아래가 길고 위가 짧은 소위 층급형이나, 함평성당은 우측면에만 놓여 2베이 간격으로 시설된 차이점이 있다. 한편 해남성당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덮여 확인이 어려우나 화란식 내지 영식 쌓기일 것으로 짐작되며, 버트레스는 시설하지 않았다.

석조성당은 경동과 일로, 무안, 북교동성당이 해당한다. 광주대교구에서 석조성당은 한국전쟁 이후에야 비로소 등장하였고, 이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1960년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황에서 구하기 어려운 공장생산 벽돌을 대신해 돌이 군인과 교인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공장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 선택되었다.²²⁾

이들 석조성당은 당시 목포에 거주했던 석장 손양동(1916~2016)이 지은 것으로 일로와 무안, 북교동은 거의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다.²³⁾ 일로성당이 소개된 내용을 통해²⁴⁾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외벌쌓기로 돌을 쌓았고, 벽체 내부는 1차로 거푸집을 대고 모르타르로 채웠음을 알 수 있다.

퀘셋으로 지어진 성당은 곡성과 화순, 담양성당이다. 퀘셋은 파형 아연 도금 강판의 반 원통형 단면을 갖는 경량 조립식 구조로 미 해군이 숙련된 노동력 없이도

20) 김재웅, 앞의 논문, 2020, 186쪽

21) 함평군, 앞의 보고서, 2019, 3쪽

22) 안창모, 교회건축을 말한다 7, 평화신문, 2021. 4. 8

23) 김지민, 무안 근대문화유산 조사, 무안군, 2019, 13쪽

24) 김지민, 앞의 보고서, 2019, 19쪽

어디든 운송할 수 있고 조립할 수 있는 다목적 경량 건물이 필요했던 1941년에 처음으로 제조되었다.²⁵⁾



곡성(1958)

화순(2007)

그림 7. 퀘셋 구조와 내부

군용으로 개발된 이 퀘셋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원조로 성당 골조에 사용되었고, 곡성성당이 현존하고 있다. 이미 철거되어 실물 확인은 불가하나, 화순성당²⁶⁾과 담양성당²⁷⁾도 내부 사진을 통해 퀘셋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퀘셋으로 지어진 성당의 내부는 아연도금 강판이 노출된 상태이나, 외부는 적벽돌로 외피를 둘러 벽돌조 성당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러나 측면 길이와 창호의 배열 등 일반적인 벽돌조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퀘셋 구조의 일정한 규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퀘셋으로 지어진 성당 역시 석조와 마찬가지로 광주대교구에서 격동기에만 등장하는 특이점이 있으며, 군용 퀘셋의 골격에 의한 터널 형태의 내부와 적벽돌로 외피를 형성한 외관, 뼈대의 간격에 의한 외부 아치창의 배열 등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3-4. 규모의 증가와 베이 간격의 감소

연구 대상 성당의 규모와 베이 간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성당 규모는 일로성당이 건축면적 약 460㎡로 가장 크고, 영산포성당이 약 281㎡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평균은 354.3㎡로 해방 이전에 지어진 성당의 면적 평균 224.9㎡와²⁸⁾ 비교하여 약 1.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3~5베이에 해당하는 증가면적으로 한국전쟁 후 가톨릭 신자가 증가한 현상을²⁹⁾ 반증한다.

표 2. 규모와 베이 간격

	함평	경동	영산포	일로	무안
넓이	9.26m	10.4m	8m	11.2m	9m
길이	28m	31.7m	22.4m	37m	27.3m
면적	264.96㎡	329.68㎡	280.95㎡	461.2㎡	256.02㎡
베이	3.65m	3.65m	1.8m	2.4m	2.4m
	동산동	흑산	곡성	북교동	해남
넓이	10m	9m	12.1m	12.2m	11.8m
길이	30.9m	32.7m	30.3m	34.6m	34.6m
면적	309㎡	330.6㎡	372.63㎡	451.56㎡	397.04㎡
베이	3.6m	3.6m	2.4m	2.7m	2.7m

몸체의 길이 역시 일로성당이 37m로 가장 긴 반면에, 측면 넓이는 곡성성당이 12.1m로 가장 넓다. 곡성성당의 측면 길이는 몸체 길이와 전체 규모 등 치수 계획에 의한 수치라기보다는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퀘셋의 정해진 규격에 의한 수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실측 조사에³⁰⁾ 따르면 퀘셋의 경량 철골 뼈대의 간격은 1.2m로 파악되었고, 격간으로 배치된 창호는 자연스럽게 2.4m의 간격이 된다.

특수 구조로 지어진 곡성성당과 라틴 크로스 평면인 영산포성당을 제외한 나머지 성당의 평면 구형비(矩形比)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규모인 일로성당이 1:3.3(넓이:길이)으로 파악되고, 함평(1:3.02), 경동(1:3.04), 무안(1:3.03), 동산동(1:3.09), 해남성당(1:2.93) 등 주로 1:3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대교구 초기 성당건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벽돌조로 지어진 성당의 버트레스 간격과 이를 모방한 서양식 목조로 지어진 성당의 아치창 간격이 3.65m로 일치하며, 1930년대에 지어진 성당은 규모 설정에 있어 3.65m(12자, 1자=30.3cm)를 모듈로 적용하였음을 밝혔다.³¹⁾

본 연구 대상 중 가장 시기가 빠른 중층구조인 함평성당(1952)과 경동(1954)성당의 모듈이 3.65m로 동일하여, 초기 성당건축의 암시적인 규범을 따랐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중층구조로 발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성당은 모두 단층으로 영산포성당(1956)은 1.8m, 일로(1956)와 무안(1957), 곡성성당(1958)이 2.4m, 해남성당(1959)이 2.7m의 모듈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로와 무안성당은 동일 시공자에 의해 거의 동시에 지어진 것으로 모두 2.4m의 모듈이 적용되었고, 곡성성당은 전술한 바와 같이 퀘셋의 정해진 규격에 의한 수치라고 해석된다. 한편 가장 적은 모듈인 영산포성당은 작은 규모에 합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30) 2021년 (재)전남문화재단연구원 실측(성대철)

31) 김재웅, 앞의 논문, 2020, 189쪽

25) A Quonset hut. https://en.wikipedia.org/wiki/Quonset_hut

26) 오요안 신부의 가톨릭, <http://www.ocatholic.com>

27) 강길선, 앞의 논문, 1989, 80쪽

28) 김재웅, 앞의 논문, 2020, 188쪽, <Table 4>

29) 김재웅, 앞의 논문, 2020, 189쪽, [Figure 10]

4. 결 론

본 연구는 해방과 격동기에 준공된 광주대교구 성당 건축을 대상으로 건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방과 격동기에 준공된 광주대교구 성당은 모두 14 채로 파악되며, 현재 10채가 남아 본당으로 활용되거나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이들 성당은 당대 타 교구에서 나타난 근대 지향성 혹은 한·양 절충의 성격은 보이질 않고, 양식 변형의 서양식 성당으로서 일부 미군의 원조를 받거나 신자들의 노력 봉사로 지어진 점과 앵스의 공간 연출, 종탑의 강조와 간소화, 석조성당의 등장, 퀸셋 구조의 적용, 규모의 증가와 같은 특이점을 보인다.

공간 구성에 있어 앵스는 후면으로 도출면이 없는 비도출형이 주를 이루고, 비도출형 앵스는 제대의 양측에 대칭으로 내벽을 쌓아 실로 구획하여 앵스와 유사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이 만입된 앵스는 해방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고, 석조성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기도 하다.

특히 제의실로 활용된 만입된 앵스는 의장성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평면구성이며, 제대 후벽 양측에 세로 창을 둔 스테인드글라스와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당대 앵스의 의도된 공간 연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출형 종탑은 한국전쟁 이후 하느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시대성이 두드러지며, 초기 성당에서 나타난 외벽을 치켜올려 종을 매단 간소화된 형식은 전면에 포치 혹은 전실을 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석조성당은 해방 이후에 비로소 등장하여 격동기에만 지어지는 특이점이 있으며, 한국전쟁으로 구하기 어려워진 공장생산 벽돌을 대신해 돌이 건축 재료로 선택되는 시대적 배경을 지닌다.

퀸셋 구조의 성당 역시 석조성당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이후 격동기에만 지어지는 특이성이 있다. 미군의 원조로 지어진 성당으로서 군용 퀸셋의 골격에 의한 터널 형태의 내부와 적벽돌로 외피를 형성한 외관, 뼈대의 간격에 의한 외부 아치창의 배열 등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성당 규모는 한국전쟁 이후 신자들의 증가세가 반영되었다. 당대 면적 평균(354.3m²)은 해방 이전에 지어진 성당의 평균(224.9m²) 보다 약 1.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3~5베이에 해당하는 증가 면적이다.

평면 구형비는 주로 1:3(넓이:길이)에 근접하고, 치수 계획은 베이의 간격을 모듈로 보았을 때 초기 성당건축의 암시적인 규범인 36.5m를 따랐으나 차츰 2.7m, 2.4m로 감소하였다. 특히 2.4m의 베이 간격은 1.2m 간격으로 구성된 퀸셋의 구조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본 연구는 해방과 격동기에 준공된 성당을 대상으로 삼은 시기적 한계를 갖는다. 향후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와 현대에 이르는 통시적 연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별 비교 연구로 확대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비교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길선, 「한국성당건축의 공간변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89
2. 김의용,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부산 카톨릭 성당건축의 성격에 관한 연구: 배치형식과 건축양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10권 1호, 2008
3. 김재웅, 「광주대교구 초기 천주교 성당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22권 1호, 2020
4. 김정신,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사』,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 1994
5. 김지민, 『무안 근대문화유산 조사』, 무안군, 2019
6. 서성남, 「강원 영동지역 성당건축의 형태적 특성 연구: 1950년대 성당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8
7. 안창모, 교회건축을 말한다 7, 평화신문, 2021. 4. 8
8. 조홍석, 김정동, 근대 적벽돌 생산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건축역사학회, 제19권 6호, 2010
9. 하상균, 「대구·경북의 근대 성당 건축에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 경일대학교 석사논문, 2011
10. 함평군, 『(구)함평성당 내부창호복원 및 수장 도장공사 수리보고서』, 함평군, 2019
11. https://en.wikipedia.org/wiki/Quonset_hut.
12. <http://www.ocatholic.com/>
13. <https://blog.daum.net/102prince/136>
14. <https://cbck.or.kr/Catholic/Korea/History>

접수(2022. 02. 21)

수정(1차: 2022. 03. 12)

게재확정(2022. 04. 08)